

# 완도군, 271km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완료

### 지난 3년 동안 12개 읍면에 18억 투입 산림·해양 경관 즐길 수 있는 코스 조성

완도군에서는 산림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12개 읍면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 숲길, 임도 등 약 271.4km 구간에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1차 연도에는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에 1단계 구간을, 2차 연도에는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청산면 등에 2단계 구간을 조성했다.

올해는 노화, 소안, 보길 등에 3단계 구간(총 102.6km)을 조성했으며, 3단계 구간은 가학산과 격자봉을 중심으로 트레킹 코스 신설 및 정비, 쉼터 조성, 돌계단 보수, 안내판

설치 등 숲길을 이용한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했다.

특히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현장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목재 제품을 사용해 이질감을 최소화했다.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숲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완도만의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산림·해양치유의 중심지, 건강의 섬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백나영 기자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12개 읍면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 숲길, 임도 등 약 271.4km 구간에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완도군 제공

해남군, 창작 발레 '시월, 애기섬' 공연

해남군은 해남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민간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인 창작 발레 '시월, 애기섬'을 다음달 14일 저녁 7시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창작발레 '시월, 애기섬'은 1948년 여순사건의 아픔을 발레로 재탄생시킨 공연으로 해방 이후 이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병사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며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내용으로, 잊갈린 운명의 주인공들이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용서와 치유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내용을 담았다. 이야기의 장소가 되는 애기섬은 1950년 국가권력이 민간이 100여 명을 집단 수장시킨 아픈 역사를 품은 장소이다.

티켓예매는 네이버를 통해 예매(1인 4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균일가로 5천원이다. 아울러 일부 좌석은 전화예매(061-530-5137, 5139)도 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 장흥군, 2022년 국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일부 보장금액 최대 '2천만 원→3천만 원' 상향

장흥군은 국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22년 상향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피해 사고가 많은 일부 보장 항목의 보장금액이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3천만원

▲의사사고 사망 2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3천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3천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3천만원 ▲전세서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3천만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국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두연 기자

## 보성, 고품자 맞춤형 재산세 리플릿 제작

보성군은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에 앞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재산세'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리플릿 제작은 내용이 복잡하고 글씨가 작아 고품자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납부 시기, 납세자, 납부 방법을 큰 글씨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특히, 기존 리플릿은 지방 세목별로 정보 전달에 중점을 뒀다면 신규 리플릿은 재산세와 관련해 평소 질의가 가장 많았던 5가지 문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주민들이 재산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알기 쉬운 재산세 리플릿은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알기 쉬운 재산세 리플릿을 통해 재산세에 대해 이해하고,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친절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 진도군,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구름숲아토토리(주)가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 건강 증진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추진 ▲정신건강문화 확산과 직업 체험 기회 제공 등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름숲아토토리(주)는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내 소외 계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커피 클래스, 진도 민속문화체험 활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과 재능 발굴에 힘쓰고 있다.

최근 구름숲아토토리에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 내리기 체험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과 사회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 고흥, 해수욕장 개장 준비 완료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맞춰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5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남해해돋이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관내 10개 해수욕장이 이달 중순까지 모두 개장한다고 밝혔다.

남해해돋이 해수욕장에 이어 발포 해수욕장이 8일, 나루우주염포·대전·풍류 해수욕장이 9일, 연소·의금·금강 해수욕장이 10일, 덕흥 해수욕장이 11일 각각 개장한다.

군은 피서객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 음수대,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10개 해수욕장에 69명의 수상안전요원 배치와 더불어 여수해양경찰서 및 고흥소방서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유빈 기자

